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교육정보센터에서는 암환자와 가족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강의형 교육과 상담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자가관리와 회복을 돕는 운동 교육 ▲원예교실·요가·싱잉볼 명상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10월 24일 서관 1층 암교육정보센터에서 참가자들이 원예교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미엄 죽전문점
'본죽'**

"가장 속편한 행복"
죽전문점 '본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낙지김치죽



11,000원

전복죽



13,000원

※ 해당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 : 신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 평 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8시
토요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매주 일요일 휴무

주요 메뉴 : 삼계전복죽(16,000원), 전복죽(13,000원), 쇠고기야채죽(11,500원), 동지팔죽(10,000원), 단호박죽(10,500원), 새우죽(9,500원)

추천 메뉴 : 얼큰한 낙지김치죽 (11,000원)

문의 : 02-3010-6420

※ 외래식당가 포장 판매, 직원 10% 할인 (사원증 또는 사번 제시 후 이용 가능,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 적용)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조분남(내과간호1팀)

아로마틱 핸드 워시 (50,000원 상당) 김현주(중앙공급팀)
이은숙(암병원간호2팀)

스카이라운지 이용권(70,000원)
손지원(수술간호팀)

달마이어 이용권(10,000원) 김민우(특수검사팀)
서민기(심장혈관흉부외과)
송현정(진단검사의학팀)
오정화(외과간호2팀)
최경화(수술간호팀)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봉경균(병리팀)
윤정오(소화기내시경팀)
이상희(진단검사의학팀)
홍다혜(외과간호팀)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3년 11월 15일(수)
발표 제714호(2023년 12월 1일 발간)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12 2023. 11. 1



4년 만에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 '하나된 우리'

10월 28일 토요일,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직원과 가족 4,000명이 남양주 종합운동장에 모였다. 코로

나19로 중단됐던 한마음 체육대회가 4년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이다. '소통, 화합,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화합을 다지는 단체 게임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고 풍성한 간식과 점심 뷔페가 마련됐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직원과 가족들은 함께 웃음을 피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사진은 체육대회에 참여한 박승일 병원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박성욱 의료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두 번째)을 비롯한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3면)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04 NEWS 승모판막 클립시술 국내 첫 100례

14 체육대회 특집 다시 만나서 반가워, 체육대회 이모저모

10 AMC IN(人)sight 느린 걸음으로 뜨거운 완주를 꿈꾸다

18 잡(job)·담(談) 힘겨운 항암 치료도 안심하세요

직원과 가족 4,000명 소통과 화합의 시간

“모든 직종과 세대가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 보내길”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남양주 종합운동장에는 직원과 가족 4,000명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사진은 OX 퀴즈에 참여한 직원들이 정답을 맞힌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10월 28일 오전 9시, 흰색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직원들이 동료, 가족들과 함께 남양주 종합운동장에 속속 모여들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체육대회에 직원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병원 밖에서 만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입장과 동시에 숫자가 적힌 팔찌를 손목에 차며 행운권 당첨을 기도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퓨전타악 공연이 펼쳐졌고, 곧이어 개회식이 시작됐다.

박승일 병원장은 “코로나19 긴 공백을 깨고 다시 체육대회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병원이 개원 다음 해인 1990년부터 체육대회를 시작해 그동안 여러 차례 신종 감염병에도 꾸준히 개최해 왔지만 최근 3년 동안이나 못했으니 코로나의 영향이 대단했던 것 같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모인 동료, 가족들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정성껏 준비한 점심도 맛있게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애쓰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박성욱 의료원장은 “올해 역대 체육대회 중 가장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참석하신 직원, 가족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오늘 청명한 하늘과 넓은 운동장에서 평소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은 물론 모든 직종과 세대가 하나가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승일 병원장이 청팀과 백팀 선수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체육대회에 참석한 정몽준 이사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정몽준 이사장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어 반갑다. 예전 노래 중에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다. 노래 가사 중에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오늘 가을 하늘이 꼭 그런 날인 것 같다. 제가 직원들과 함께 참여할 종목이 있으면 꼭 불러 주시길 바란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청팀과 백팀의 선수대표 선서에 이어 드론을 활용한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고, 양팀의 열띤 응원 속에 단체 경기가 펼쳐졌다. 직원과 가족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축구 승부차기 ▲전략 줄다리기 ▲볼볼공 채우기 등을 하며 함께 어우러져 하나되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 처음 체육대회에 참가한 심장내과 김태오 조교수는 “체육대회에 처음 와 봤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이와 함께 오징어게임에 참가했는데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해서 나도 기분이 좋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직원들과 즐겁게 대화도 하고, 오늘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응급간호팀 박소라 대리는 “가족과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 페인팅이나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놀이공원보다 더 좋아할 줄은 몰랐다(웃음). 엄마로서 오늘 점수를 제대로 딴 것 같고 맛있는 식사까지 최고다”라고 말했다.

각종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열기구 탑승 체험 ▲레이저

서바이벌 ▲풍선 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운동장 곳곳에서 동료들과 즉석사진을 찍으며 이날의 추억을 기록하기도 했다. 재해예방관리실 한성민 주임은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다른 부서의 동료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입사 후 매년 체육대회에 참석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아 정말 아쉬웠다. 올해 드디어 다시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미리 일정을 빼놓고 기다렸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선물, 음식 등을 준비해준 직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내년 체육대회도 오늘만 같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전 일정이 끝난 뒤에는 풍성한 점심 뷔페가 직원과 가족들을 반겼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낸 뒤, 체육대회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인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다. 세탁-건조기, 안마의자, 호텔 숙박권 등 경품 당첨자의 번호가 불려질 때마다 축하의 박수와 함께 부러움이 담긴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근무를 하느라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원내 행운권 추첨도 이뤄졌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1등 상품을 받은 영상의학팀 정민철 대리는 “매년 가족들과 함께 체육대회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오늘은 1등 상품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올해 한마음 체육대회 우승은 청팀에게 돌아갔다. 승패를 떠나 이날 모인 직원과 가족 4,000명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 (화보 14~17면)



직원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승모판막 클립시술 국내 첫 100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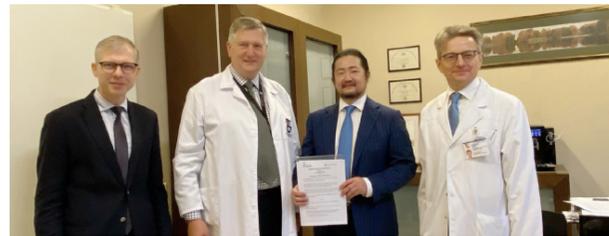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오른쪽), 강도윤 부교수(가운데)가 100번째 승모판막 클립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승모판 역류증은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심장 내에서 역류하는 질환이다. 기존에는 가슴을 여는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해 고령, 고위험 환자들에게는 수술 부담이 컸다.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강도윤 부교수팀은 2020년부터 개흉 수술 대신 클립으로 시술하는 ‘승모판막 클립(마이트라클립) 시술을 적극

시행하며 최근 국내 처음으로 100례를 달성했다. 승모판막 클립시술은 승모판막을 구성하는 두 개의 판 사이를 클립처럼 집어서 판막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생기는 빈틈을 없애 혈액 역류를 감소시키는 시술이다. 사타구니 정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 심장 내부에 도달시킨 다음 3D 초음파로 클립의 정확한 위치와 승모판의 해부학적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벌어진 승모판에 클립을 장착한다.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서 승모판막 클립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78세다. 5명 중 2명은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차성 승모판 역류증 환자였다. 환자 2명 중 1명은 심방세동을 동반했으며 60%에서 고혈압, 20%에서 당뇨, 17%에서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다. 또한 약 30%가 이전에 심장 시술 혹은 수술을 받았던 고위험 환자였음에도 시술 성공률 97%, 시술 후 1개월 생존율은 99%를 기록했다.

리투아니아 보건과학대와 협약 체결



리투아니아 보건과학대학교 리만타스 베네티스 총장과 우리 병원 대표로 참석한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왼쪽 두 번째, 세 번째)가 현지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11월 1일 리투아니아 보건과학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리투아니아 보건과학대학교는 의학 연구 분야에서 자국 내 최고로 평가되며 2,0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리투아니아 보건과학대학교 부학장과 의료진 4명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의 지도 하에 연수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병원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인적자원과 학술정보 교류, 공동 연수 행사 개최, 환자 공동진료 및 송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간호부 결원 대체 지원팀 운영

간호부가 부서 내 결원 발생 시 대체 근무를 지원하는 ‘A-plus 팀’ 운영을 11월 1일 시작했다. 간호부는 지난 9월 A-plus팀에 참여할 간호사를 모집했으며 최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호사들의 근무 스케줄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된 A-plus팀은 전문성을 갖춘 경력간호사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병

동, 중환자실 등 교대근무 부서에서 경조사, 질병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 근무를 수행한다. 긴급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간호사는 근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서에서는 스케줄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생리학검사실 확장 개소



10월 25일 열린 전기생리학검사실 확장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생리학검사실이 4개월간의 증설 공사를 마치고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검사실 리모델링을 통해 시술실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었고 부정맥 전용 시술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이번 검사실 증설은 늘어나고 있는 부정맥 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리 병원 심방세동, 심실빈맥 등을 치료하기 위한 고난도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시술 장비 및 검사실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검사실 증설에 따라 ▲시술 대기 일수 감소 ▲당일 시술 후 퇴원 환자 증가에 따른 입원 일수 감소 및 시술 건수 증가 ▲정규시간 내 시술실 이용 효율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혈대 교체로 만족도 높여



서관 채혈실 직원이 10월 25일 새로 교체된 채혈대에서 채혈을 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가 최근 서관 채혈실의 채혈대를 새롭게 교체했다. 채혈하는 팔을 올려두는 각도를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팔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편안한 자세에서 채혈이 가능하다. 또한 채혈대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환자가 사용 가능한 공간이 넓어졌다. 채혈대에는 열선이 내장돼 있어 환자가 채혈할 때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돕고 채혈하는 팔의 혈관을 이완시켜 채혈 성공률을 높인다. 이번 채혈대 교체로 고객 만족도와 채혈 업무의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만산란 이용한 분자 진단 플랫폼 개발



김준기 부교수

융합의학과 김준기 부교수팀이 최근 딥러닝 기반의 표면증강 라만산란(SERS) 기술을 이용해 핵산을 직접 증폭할 수 있는 분자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SERS는 금속 표면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몬 공명 현상을 이용해 라만광 신호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금나노입자 표면에 고정된 프라이어머를 이용해 새로운 기판을 제작하고 SERS 표면에서 직

접적으로 핵산을 증폭시켰다. 증폭 전후의 SERS 신호를 비교한 결과 금속 물질의 혼합 없이도 직접 증폭된 핵산의 라만 신호 검출이 가능했고, 딥러닝 기술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검출 시간은 20분 이내로 기존보다 빠르고 민감도도 100배 이상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의 검체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100%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획득해 감염 질환의 분자 진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에이씨에스 나노」에 최근 게재됐다.

동 정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 개최



산부인과 원혜성 교수(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ISUOG) 제33차 학술대회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ISUOG는 산부인과 초음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꼽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91개국 2,300여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역대 두 번째 최다 참석인원을 기록했으며, 아시아 의료진은 역대 가장 많이 참석했다. 원 교수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역량이 글로벌 위상을 갖추고 국내 의료진이 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상욱 교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위촉



방사선종양학과 이상욱 교수가 최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 교수의 임기는 2023년 9월 18일부터 2025년 9월 17일까지 2년 간이다.

김재용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안과 김재용 교수가 10월 12일 제53회 눈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취약 전 어린이와 노인 대상 실명 예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아태소아소화기영양학회 개최



소아청소년전문과 김경모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소아소화기영양학회 학술대회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36개국 6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아영양, 초음파 핸즈온 코스 등 소아청소년기 소화기 영양학 주요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시아 의사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상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가 10월 19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상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분야인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을 고취하고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교수는 의료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이창환 교수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위촉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창환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 분자세포의학 분야 전문위원으로 최근 위촉됐다. 이 교수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전문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 이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학문적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이 교수의 임기는 2023년 11월부터 1년간이다.

김성훈 부교수팀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대회 1위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부교수가 이끄는 생체신호연구단(김동규·김현석·서우영 연구원)과 융합연구지원센터 심우현 부교수의 바이오메디컬컴퓨팅코어랩(윤홍철 연구원) 공동연구진이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제24회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생체신호에 최적화된 사전학습 딥러닝 모델과 데이터 증강기술을 활용한 연구로 해커톤 분야에서는 1위, 챌린지 분야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11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박소연 조교수 올해의 코칭 도서상



치과 박소연 조교수가 집필한 책인 '강점으로 키워라'가 2023 올해의 코칭 도서상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코칭관련 도서 출판을 장려하고 코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코칭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코치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이다.

간호봉사단 강동구청장 표창

우리 병원 간호봉사단이 10월 6일 강동구청이 개최한 제27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식에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동구청장 표

창을 받았다. 간호봉사단은 2009년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 ▲강동구 거주 어르신 대상 혈압, 혈당 점검 및 건강상담 ▲우리 병원 인근 사회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식사 준비 및 배식 ▲심폐소생술 교육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해는 총 227명의 간호사가 간호봉사단 활동에 참여했다.

허수빈 임상전임강사 최우수초록상



영상의학과 허수빈 임상전임강사가 최근 열린 제79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3)에서 최우수초록상을 받았다. 허 임상전임강사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선종의 임상병리적·영상의학적 소견 분석을 위한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단 신

세대 소통 특강

우리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세대 소통 특강이 10월 16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우리 AMC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 '세대 차이를 성장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 특강의 후속 강연으로, 이은형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배들과 즐겁게 일하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직원 380여 명이 참석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에 참여하며 열띤 호응을 보였다.

암환자 위한 가을 행사 개최



10월 23일 열린 '자치·지·마'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치·지·마(지식·치유·지혜·따뜻한 마음)' 행사가 10월 23일 동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음악으로 마음을 채우고 지식으로 건강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암환자 및 가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영양팀 민지연 과장이 '암과 건강한 식생활',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가 '암환자와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사이에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마음이 안전한 스피크 업 / 리슨 업



03 나와 동료의 안전을 위해 Listen Up!

우리 병원의 일화입니다. 병동 간호순회 중이던 A 선생님은 다른 부서 B 선생님이 병실에 부착된 접촉주의 스티커를 보지 못해 보호구 없이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 선생님은 바로 얘기하려다 망설입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화를 내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 B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B 선생님은 "선생님! 제가 못 보고 지나쳤는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며 자신의 위해 말해 준 A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잘 듣는 것(Listen Up)'은 나의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감염관리실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가 일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Speak Up/Listen Up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신경비상팀 심포지엄



10월 14일 열린 신경비상팀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5회 신경비상팀 심포지엄이 10월 14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

최됐다. ‘급성뇌병증과 섬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련 분야 의료진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 의식장애의 개요 및 진단적 접근 ▲급성뇌병증과 섬망에 대한 다학제 접근 방법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응급 중환자의학, 신경학, 신경외과학, 중환자간호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전상범 신경비상팀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신경학, 중환자의학, 응급의학, 신속대응시스템 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활 소아 워크숍



10월 14일 열린 재활 소아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회 재활 소아 워크숍이 10월 14일 서관 3층 강당에서 개최

됐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병원이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험 신생아 재활 치료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아 재활의학 분야 의료진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원내외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115명의 의료진이 참석해 고위험 신생아의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재용 재활의학과장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평가, 치료 및 보호자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고 수가 책정 등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재활 소아 워크숍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래뇌융합기술 개발사업 심포지엄



10월 20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 뇌졸중센터가 주관하는 뇌과학 연구를 위한 융합기

술 개발사업 심포지엄이 10월 20일 동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우리 병원에서는 신경과 김범준 부교수, 영상의학과 정승채 부교수가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미래뇌융합기술 개발사업 국책과제를 수주했으며 삼성서울병원, 한국뇌연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참여기관 연구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진행 현황을 소개하고 뇌과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공유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성인 급성기 뇌출혈 환자에서 활성산소제거제 효과



신경외과 김모이네 조교수

신경외과 김모이네 조교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제62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인 급성기 뇌출혈 환자에서 활성산소제거제 효험: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는 주제로 혈관 부문 최우수연구상인 이현재 학술상을 받았다. 이 연구 결과는 급성기 뇌출혈 환자에게 활성산소제거제를 투약 후 뇌출혈 주변의 부종이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급성기 뇌출혈 시 출혈 주변에 부종이 발생하게 된다. 환자의 출혈량은 많지 않지만 주변의 부종이 심해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 경과가 좋지 않다. 이 출혈 주변 부종은 혈액 응고로부터 방출되는 트롬빈과 철 등의 독성 인자들에 의한 산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과거 급성기 뇌출혈 환자에게 활성산소제거제 투약 시 출혈 주변 부종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급성기 뇌출혈 환자에게 초기에 약제를 동시 투약하는 콕테일 방법으로 활성산소제거제를 투약했을 때 임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추적 검사 상에서 활성산소제거제 투약군이 위약군에 비해 유의하게 뇌출혈 주변 부종이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활성산소제거제 투약 후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는 유의한 농도 차이가 관찰됐다. 그 외 활성산소제거제 투약 관련 중대한 유해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 뇌졸중학회지 「스트로크」에 소개됐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본 연구는 2년 4개월 동안 4개의 병원에서 뇌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방법으로 진행됐다. 먼저 뇌출혈 환자를 무작위로 활성산소제거제 투약군과 위약군으로 분류했다. 활성산소제거제 투약군에는 뇌출혈 발생 후 급성기에 아세틸시스테인과 셀레늄을 정맥으로 투약했다. 뇌출혈 발생 후 촬영해 2주 뒤 CT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이번 연구로 급성기 뇌출혈 환자에서 다양한 활성산소제거제 투약이 출혈 주변의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급성기 뇌출혈 환자에게 출혈 및 주변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됐지만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지 못했다. 현재 대부분의 조절되지 않는 뇌부종을 가지고 있는 뇌출혈 환자에게는 개두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개두술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하며 개두술을 받더라도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급성기 뇌출혈 환자의 투약이나 개두술에 대한 예후를 예측해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느린 걸음으로 뜨거운 완주를 꿈꾸다



재활의학과 고은재 조교수

고은재 조교수는 신경외과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인 뇌성마비 환아에게 편지를 받았다. “새로운 치료법을 알려 주고 보다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환자의 감격과 의지는 어떠한 길도 함께 찾아 나설 힘이 되었다. 앞으로의 재활 치료에서 중요한 점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걸음을 다듬을 때마다 고 조교수는 소아 재활 분야에 몸 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소아 재활 분야의 새로운 도전 “제가 만나는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데 급급했던 예전과 달리 삶의 질이 점점 중요해진 요즘은 소아 재활 분야의 진단과 치료 범위도 폭넓다. 특히 고위험 산모가 많은 우리 병원의 특성상 조산아부터 유전 질환이나 각종 수술을 받으며 생긴 발달 지연 및 섭식 장애, 소아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 치료의 요구도가 높다. 고 조교수가 최근 주목하는 것은 소아심장재활 프로그램이다. “심장 기형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섭식 장애와 발달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내과적, 수술적 치료가 끝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 없이 학교 생활만 겨우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성인이 되면 유산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소아심장 관련 의료진과 의기투합해 소아심장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소아심장

재활 자체가 낯설어 환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최근에 심장 이식을 앞둔 환아에게 수술 전 재활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요. 이식받기 전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실보조장치를 달고 있으니 병실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심장을 이식받은 뒤 극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재활의학과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죠.” 이 밖에도 고 조교수는 소아호흡재활, 소아암재활, 소아중환자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치료 환아들을 검사하고 진단을 내리면서 자녀의 질병을 처음 알게 된 보호자의 표정을 마주하게 된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 고 조교수는 차분히 보호자와 환아를 격려하고 최선의 치료에 대해 상의한다. “가족의 일상이 아예 바뀌는 순간이기에 제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항상 환자의 편에 서려고 애쓰면서 좋아진 점과 격려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 자체로도 부모님에 대한 지지가 되거든요. 그 후에 안 좋아진 점이나 치료가 더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더 좋아진 모습으로 뵈게요’라며 인사하세요.”

아이를 치료할 때 보호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우리 병원 재활의학과가 가정 기반 재활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 및 치료실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 많이 간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듯이, 치료사에만 의존한다면 기대만큼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보호자가 함께하는 시간에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가 발달에 영향을 주죠. 아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교육하고 상담하는 데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력을 따라서 고 조교수가 잠시 울산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척수수막류 환아 가족이 울산까지 찾아왔다. 펠로우 때부터 진료한 인연을 이어간 것이다. “저를 믿어주는 환아 가족 덕분에 ‘내가 도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벌써 10년째 만나고 있는데 많은 아픔에도 씩씩하고 밝게 자라서 정말 고맙고 예뻐요. 제 치료 분야의 특성은 다양한 질환으로 장애가 생긴 아이들을 오랫동안 만난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이 제 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도움 주는 걸 좋아하는 고 조교수의 성격은 팀을 이뤄 치료하는 재활의학과와 잘 맞았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한 환자에 대해 의사, 치료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해 치료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제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알게 돼요. 높은 수준의 전문가분들이 우리 병원의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새로운 치료법을 입증하고 보급하는 일도 꾸준히 진행하고요. 부정과 슬픔의 단계를 거쳐 묵묵히 자녀에게 헌신하는 부모님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다 보면 겸손하게 되고 제 일에도 진중해져요. 항상 아이들과 그 가정의 편에서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세포 및 실험동물 방사선조사 적용 연구

융합연구지원센터 실험방사선조사실

방사선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더불어 암 치료의 3대 치료법 중 하나다. 최근에는 악성 종양 및 양성 질환에서도 방사선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실험실에서도 방사선조사를 적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 방사선조사 관련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험방사선조사실을 소개한다.

방사선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유전자 타겟 발굴

융합의학과 O교수는 폐암 세포에서 700여 개의 유전자들을 억제시키고 방사선조사를 시행해 어떤 경우 세포 사멸 효과가 가장 컸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실험방사선조사실은 방사선조사를 수행했고, O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 방사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전자 타겟을 발견했다. 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약물이 개발되면 암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주 조교수(오른쪽)와 박규상 연구원이 실험동물의 방사선조사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방사선치료와 특정 약물의 시너지 효과 확인

종양내과 O교수팀은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과 방사선치료를 병용할 때 방사선치료 단독 적용보다 종양 사멸 효과가 우월한지 마우스 모델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했다. 마우스의 우측 뒷다리와 좌측 옆구리에 종양을 주입해 마우스 모델을 만들고, 방사선조사는 우측 뒷다리에만 시행했다. 방사선치료 단독군에 비해 신약 후보물질을 함께 복용시킨 마우스군에서 우측 뒷다리 종양 감소뿐만 아니라 좌측 옆구리 종양 감소 효과도 우수함을 증명했다.

양성 질환에서 저선량 방사선치료의 효과 증명

방사선종양학과 O교수는 저선량 방사선치료가 골관절염 진행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 확인하고자 했다. 골관절염이 유도된 마우스에 0.5Gy, 1Gy의 저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연골퇴행을 유발하는 연골기질 분해효소 발현은 유의하게 감소했고, 연골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2형 콜라겐 단백질 발현은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김연주 조교수가 방사선조사장비의 조사에너지, 시간 및 방사선원과 조사될 시료까지의 거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방사선조사를 위해 시료를 조사장비 내부에 위치시키고 있다.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고에너지 방사선치료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후 현대적 의미의 방사선치료가 적용된 이래 다양한 기법과 장비를 활용한 방사선치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암 치료뿐만 아니라 켈로이드와 같은 양성 종양 및 이소성 골화증 예방에도 방사선치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골관절염, 치매 등과 같은 양성 질환에도 시도되고 있다. 또한 약물을 방사선치료와 병용해 시너지를 보고자 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2014년 방사선조사기를 도입해 세포와 소형 동물 방사선조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방사선조사 연구는 고위험 장비를 적용하는 특수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 지원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21년에 공식 코어로서 실험방사선조사실이 출범하게 됐다.

실험방사선조사실은 연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사선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자문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암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환에서도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방사선조사를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얻길 바란다. 방사선조사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이 있다면 실험방사선조사실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실험방사선조사실 담당교수는 방사선종양학과 김연주 조교수이며, 융합연구지원센터 박규상 연구원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기적인 장비의 점검은 방사선종양학과 의학물리지원실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실험방사선조사실은 더 다양한 방사선 적용 연구가 시행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험방사선조사실

- 담당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김연주 조교수
- 위치 : 교육연구관 7층
- 연구 지원 서비스
 - 소형 실험동물(마우스, 랫드, 토끼)과 세포 등에 방사선 조사 수행
 - 세포, 조직 손상 및 사멸 등에 관한 연구
 - 방사선조사 효과 향진, 부작용 극복 등 방사선조사 고유 연구
 - 방사선치료 적용 분야 연구방사선조사 적용 연구 진행 및 정밀 조사 기법에 대한 자문 수행
- 보유장비 : X-RAD 320 X-Ray Irradiator (Precision X-RAY inc.)

※ 융합연구지원센터는 연구 고도화와 전문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러 코어랩을 구성했습니다. 각각 전문화된 코어 기술의 효율적 운용은 우리 병원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슬기로운 연구생활' 코너에서는 융합연구지원센터가 원내·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우리의 체육대회

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가을 날씨 속 직원과 가족들이 남양주 종합운동장에 모였다. 이날만큼은 근무복을 벗어던지고 한결 편안한 옷차림으로 웃음 가득한 표정이었다. 참석자 모두 다양한 게임에 참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열린 체육대회를 한껏 즐겼다. 즐거웠던 그날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편집실>



#행운권 당첨 기원!



#몸풀기 운동도 즐겁게~!



운동장에 입장하기 전 동료들과 찰칵 📸

#사진도 찰칵~!



오랜만에 참여하는 체육대회, 너무 신나요! 😊



예쁜 스마트타투도 하나씩 그려봤어요!

#이사장님과 찰칵!



정몽준 이사장은 운동장을 돌며 직원 및 가족들과 일일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신나는 에어바운스 🎈



움직이면 안 돼!



#축구 #승부차기 슈웃~

박성욱 의료원장이 승부차기를 하는 모습. 과연 결과는?



#어떤 숫자가 나올까~



가족과 함께 즐거워 하고 있는 직원들 모습 😊

#페이스 페인팅



휘슬 소리로 시작된 줄다리기. "영차~ 영차~"



#풍선다트



#누가누가더잘추나



힘겨운 항암 치료도 안심하세요

암병원간호2팀 권혜경 과장



“ 짧은 만남에도 주고받는 마음이 있어요.
환자분들에게 제가 더 잘해야죠.”

소소한 응원

유방암 환자에게 주사를 놓다가 복잡한 심경이 표정에서 읽혔다. 어느새 환자의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혔다. 덩달아 안내하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동요된 감정을 들켜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어 보지만 환자에게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다. “환자분,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생각하다 보면 세포들도 내가 왜 이럴까 할 거예요. ‘나는 나올 거다. 꼭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세포들도 약을 잘 받아들이죠. 힘내시고 식사는 꼭 챙겨 드시고 오세요!”
순서가 되어 들어온 환자가 “첫 번째 항암 할 때 만났던 선생님이네요!”라며 반갑게 인사한다. ‘내가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데...’ 매일 만나는 수십 명의 환자를 모두 기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럴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론 힘도 난다.



권혜경 과장이 환자 접수를 하고 있다.



권혜경 과장은 두 방을 오가며 9개 침상의 환자를 담당한다.

“ 반복적인 주사 업무처럼 보여도 머릿속에선
계속 원활한 흐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암병원 주사실의 하루

아침부터 암병원주사실 복도는 대기 환자로 가득하다. 이곳에선 암 환자들의 항암제 치료뿐 아니라 수혈이나 시술, 처치, 교육 등이 진행된다. 오전 7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간호사가 출근해 하루 평균 600여 명의 환자를 맞이한다. 명절을 앞두고는 900여 명의 환자가 방문해 자정까지 간호 업무가 이어지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왜 자꾸 물어요?” 환자 확인을 하다가 예민해진 환자들의 역정을 듣곤 한다. “여기는 고위험 약을 다루서 100번을 물어도 답해 주셔야 해요!” 항암제가 들어가는 순서나 시간이 모두 다르고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거듭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 무탈하게 운영된다는 건 완벽에 가까운 집중력과 전문성의 결과다.

“ 제가 조금 느려 보여도 상관없어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니깐요.”

안전에 관한 강박

바벨수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환자들에게 되묻고 확인하며 안전을 챙긴다. 입으로 소리 내 “침착하자, 침착하자” 주문을 외울 때도 많다. 병동에선 없던 습관이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돌이킬 수 없기에 속도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초기에는 수첩에 매뉴얼을 전부 적어두고 마르고 닳도록 봤다.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꺼낼 일이 없더라도 2년간은 항상 주머니에 수첩을 넣어 다녔다.

숨을 힘들게 쉬는 환자가 들어왔다. “혹시 숨 쉬는 게 불편하세요?”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만 오면 답답해서요.” “입으로 숨 쉬면 더 어지러우니까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호흡해 볼게요.” 차츰 숨이 고요해지면서 안정을 되찾은 환자가 말했다. “저한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도 한 분 한 분 세심히 챙겨드리고 싶은데 소통할 여유가 없는 게 아쉬워요.” 먼저 건네는 한마디만으로도 환자와의 거리감은 금방 좁혀진다. 안전 못지않게 환자의 안정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실감한다.
환자가 서서히 졸여든 밤 9시. 종일 팽팽했던 긴장감은 온몸의 피로를 남긴다. 그래도 주어진 일을 무사히 모두 해냈다는 만족감에 피로를 툭툭 털고 업무를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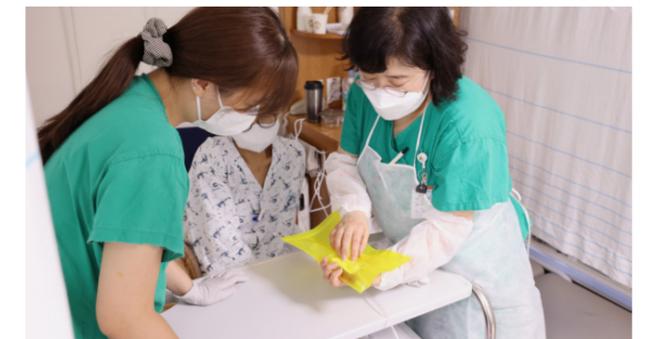


항암제 주입 속도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병원 생활 25년 차에 새롭게 느꼈죠.
‘우리 병원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베테랑 간호사의 자존심

2019년 암병원주사실에 발령받았다. 1994년에 입사한 이후 수술실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플로팅 지원, 흉부외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병동을 거치며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과 적응력을 가졌다고 자부해 왔다. 특히 심장내과와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각각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중증 환자 경험도 많았다. 그런데 무난히 해낼 줄 알았던 주사 업무는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독립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다. 두 명의 환자가 연거푸 숨을 못 쉬고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중증의 항암 부작용이었다. 순간 심장이 쿵쾅대고 손이 떨렸다. 주변에서 모두 달려와 응급조치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다. 암병원주사실은 수혈이나 천자, 골수 검사, 관 제거, 임상연구, 처치 시술 등이 복합적으로 펼쳐지는 곳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체감됐다. 결코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은 곳이었다.
암병원주사실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25년 차 경력에 찾아온 위기였다. 점심시간이면 혼자서 도시락을 먹으며 머리를 비웠다. 예약 환자들은 미리 파악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현장에 임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내자 일이 많거나 힘들어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권혜경 과장(오른쪽)이 항암제 주입 전에 병동 간호사와 환자 확인을 하고 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우주와 함께한 819일



어린이병원간호팀 장유나 주임



우주(가명)는 1.76kg으로 태어났다. 세상에 나온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대동맥축착, 심실중격결손 수술을 받고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819일 동안 우리와 함께했다. 우주를 처음 만난 날, 우주는 심박동 수가 200회가 넘어가는 부정맥이 온 상태였다. 작디 작은 아기가 새하얀 얼굴로 역류방지 쿠션에 누워 연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우주 어머니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주는 매일매일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하고 있지만 지금껏 그랬듯이 잘 견뎌낼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맥박은 안정을 찾았고 우주의 건강을 바라는 의료진의 마음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심부전은 나날이 심해졌다. 결국 심장이식을 위해 하루하루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막연한 기다림’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주와 우주 어머니는 매일 한 움큼이나 되는 약을 제시기에 맞춰 먹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작성하고, 심부전 완화 약물을 단 상태에서도 꾸준히 재활을 하는 등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했다. 어찌 보면 쳇바퀴 같이 돌아 가는 일상이지만 그 와중에도 우주는 첫 웅얼이를 하고 걸음마를 떼며 느리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두 번째 돌을 병원에서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주 어머니가 내게 와서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내일 우주가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생생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우주에게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소식이 오면 바로 전해드릴게요”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우주는 본인의 몸보다 더 큰 체외 심실보조장치(LVAD) 수술을 받는 등 생사가 오가는 응급상황을 견뎌내 주었다. ‘언제쯤 우주에게 맞는 심장이 올까?’ 의로진 모두가 간절하게 기다린 끝에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 전 우주 어머니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술 잘 끝나고 우리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라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어머니는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어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기증해주신 분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네요. 우주 정말 잘 키울 거예요”라고 말했다.

다행히 심장이식 수술이 잘 끝났고 우주는 혈색이 돌아 오고 기운이 생긴 모습이었다. 눈에 띄게 회복 속도가 빨라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반 만에 퇴원을 할 수 있었다. 우주가 퇴원하는 날, 그동안 우주를 담당했던 많은 의료진이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축하 케이크와 함께 ‘심장이 강한 아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귀여운 멜빵바지를 입은 우주는 우리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밝은 모습으로 병동을 떠났다.

우주를 간호하는 시간을 통해 소아 환자와 보호자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 아픈 곳을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리라 다짐해본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반복 강박에서 벗어나기



건강의학과 안명희 임상전임강사

전혀 닳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의 모습과 자신이 똑같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거나, 소위 ‘나쁜 남자’를 반복적으로 만나는 등 행동,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나, 고통스러웠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면 의식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충동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다른 결과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나 환경을 반복하는 심리 현상을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하며 이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우리가 이해하긴 힘들지만 여러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실수나 행동이 반복되어 고통이 유발된다면 이를 단서로 삼아 의식화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취약한 점, 이 점을 건드리는 트리거는 무엇이며 이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무엇인지. 물론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기억으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과정은 내재적인 갈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어떤 점에 마음이 끌렸는지,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돌싱글즈’ 등이 인기 있는

이유는 연애라는 보편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갈등과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지 등을 관찰하는 재미와 이를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실수를 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때 혹자는 이를 운명, 팔자소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나 여기에는 반복 강박이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관계(특히 부모님 등)가 현재도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잠재적인 충동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보세요. 갈등이 생길 때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면 자리를 피하거나 조금 더 성숙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등 다른 선택지를 가지려 해볼 수 있습니다. 만남을 정하거나 종료하는 것도 모두 자신이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책감, 죄책감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을 잘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세요. 자기 수용은 과거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나 대상을 인정하되 이제는 이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안명희 임상전임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습니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마음건강노트’ 코너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밥퍼나눔운동본부 급식 봉사

한끼 식사 그 이상의 의미



영양팀 양수영 사원

식당을 나가시며 어르신들은 "듣는히 잘 먹고 기요라는 따뜻한 인사와 미소를 건넸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신 듯 식사 후에도 우리가 준비해 간 디저트와 차를 드시며 꽤 오랜 시간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한끼 식사 대접보다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급식 봉사활동을 위해 영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청량리역 인근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았다. 이른 오전부터 독거노인과 노숙자분들이 점심 한끼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준비가 빨리 안되면 어쩌나 긴장도 됐지만 30년 넘게 진행해 온 영양팀 봉사활동의 팀워크는 남달랐다. 호호이 척척 맛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금방 배식 준비가 끝났다. 주방에서 정신없이 재료 손질, 배식 등을 지원하던 나는 후식을 나눠줄 때가 되어서야 한 분 한 분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즐겁게 웃으며 서로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작은 힘도 보태고 모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영양팀 선생님들도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듯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영양팀 직원들.

* 우리 병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에서는 봉사활동을 다녀온 직원들의 따뜻한 경험을 나눕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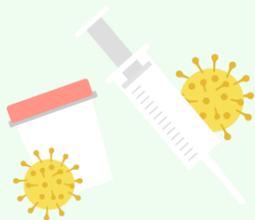
멸균 세트 준비하다 손이 닿거나 바닥에 떨어뜨려 멸균 상태가 깨졌을 때 "컨타됐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콩글리시라고 할 순 없지만 공식 약어도 아닌데 'contaminated'를 '컨타'라고 편의상 줄여 쓰는 건 잘못된 영어다. 'contact'의 줄임말로 오해할 수 있다. '멸균 상태가 깨졌다'라고 할 땐 'contaminated'를 그대로 사용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자.

컨타 됐네

- ☹️ be conta
- 😊 be contaminated

Let's Talk

- A The surgical instruments are contaminated. Get me the new ones, please. 수술 도구가 오염됐어요. 새 도구로 주세요.
- B Yes, here you go. 네, 여기 있습니다.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곳을 오물실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할까? 사진을 찾아보면 'dirt room'이라고 나오는데, 콩글리시다. 'dirt'는 오물이 아니라 흙이므로, dirt room이라고 말하면 '흙방'이 된다. 오물실 또는 쓰레기 처리실은 'waste room'이라고 하자.

오물실

- ☹️ dirt room
- 😊 waste room

Let's Talk

- A Where's the waste room? I need to dispose some medical waste. 오물실이 어디 있나요? 의료 폐기를 배출하려고요.
- B It's down the hall from the nurses' station. 간호사실에서 복도를 따라 내려가세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작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래간호팀 신경미 대리

'이야기가 있는 산책 - 야외에서 식물 키우기'를 잘 읽었습니다. 매년 식물 키우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식물은 '내가 두고 싶은 곳'이 아니라 '식물이 좋아하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 그리고 흙, 물, 빛, 바람은 기본이며 식물의 성격에 맞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꾸민 루프탑 정원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신경희과 김소영 연구원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놓지 않은 희망'을 잘 읽었습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한 명의 환자라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일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선생님처럼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과간호2팀 이나유 닷이유정사원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읽을 때마다 매일 무심코 써왔던 표현들이 얼마나 어색했던 것인지 반성하게 됩니다. 매달 이 코너를 통해 올바른 표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콩글리시 표현과 올바른 영어 표현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리팀 이채린 사원

'문화·생활정보 - 섬 여행하며 가을 만끽하기'가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섬들의 사진과 소개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꼭 가 보고 싶어요.

노화기내시경팀 박애경 선임기능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헌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로 바쁜 중에도 헌혈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전한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기사를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난호 정답

제710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섬 여행하며 가을 만끽하기'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어린이병원간호팀 장유나 주임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